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26일 '팡파르'

영광스포티움서 개최...미래기술 융합 이동수단·산업 활성화 기관·사회단체 '범군민지원협의회' 열고 성공개최 준비 분주

'2019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가 '미래 기술이 융합된 생활 속 e-모빌리티' 슬로건을 내걸고 영광스포티움에서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닷새 동안 열린다. e-모빌리티는 전기 동력을 이용해 생활 교통과 물류배송 목적으로 사용하는 1~2인용 개인형 이동수단을 일컫는다.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는 e-모빌리티 기반 미래형 이동문화를 제시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2번째 연다.

영광군은 군이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는 등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가 e-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산업통상자원부·전남도·영광군·자동차 부품연원·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가 주최한다.

올해 엑스포 행사는 남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군은 영광 e-모빌리티엑스포 개최로 대국민 홍보와 더불어 e-모빌리티 중소·중견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규제 해소는 물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신산업 토대 마련과 양질 일자리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R&D(연구개발) 실험할 수 있는 종합 테스트베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영광 e-모빌리티엑스포가 e-모빌리티산업 기업 집적화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가속화하는 데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e-모빌리티를 활용한 사업 모델을 만들고 새로운 시장 창출과 고용 창출을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영광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조직위원회는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발

판 삼아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와 국내 e-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를 행사 기간 중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19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보급 현황 및 지원 정책', 국토교통부는 '초소형자동차 안전기준 개정 및 향후 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e-모빌리티 국내산업 육성 지원 정책', 행정안전부는 '개인형 이동수단 운행 기준 마련 및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한다.

한편 영광군은 지난 10일 영광군 기관·사회단체들로 구성된 'e-모빌리티 엑스포

범군민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용구 영광읍 변영회장을 비롯한 30명의 기관·사회단체장이 참석해 엑스포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올해는 작년 대비 전시관 규모 및 각종프로그램 다양화로 볼거리가 더 많은 행사로 준비 중인데 결국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성패를 좌우한다"며 기관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영광군은 지난 10일 군청 회의실에서 지역 기관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e-모빌리티 엑스포 범군민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영광군 제공>



김산(왼쪽) 무안군수가 지난 9일 농촌진흥청을 찾아 '마늘·양파 연구소' 설치를 건의했다. <무안군 제공>

무안군 "국립파속작물 연구소 설립해달라"

농진청에 연구기능 확대 건의

무안군은 최근 농촌진흥청을 방문해 전국 최대 파속(屬) 작물(양파·마늘 등) 주산지인 전남 서남권에 국립 파속작물 연구기능 확대를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나주배연구소와 대구 사과연구소, 제주 감귤연구소 등 국가 연구기관은 대부분 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설치됐지만 무안군을 비롯한 전남 서남권은 파속 채소 전국 최대 주산지(전국 양파 재배 면적 39%)인데도 불구하고 연구기관의 역할이 미약했다.

파속 작물의 연구는 지난 1994년 무안

군민 등의 요구에 따라 작물원목시험장(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작물센터 전신)에서 양파 마늘 연구로 시작했다.

이후 2015년 바이오에너지작물센터 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과 연구실을 신설해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파속 채소 연구실은 양파, 마늘, 파 품종육성과 재배기술 개발 연구를 추진 중이나 규모나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군은 양파 마늘 연구소가 설립돼 연구 기능이 확대되면 양파 마늘 기후변화에 따른 연작장애와 병해충 방제 연구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

함평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선정...국비 105억 확보

함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0년 농촌중심지 활성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함평군에 따르면 총 사업비 150억원 규모의 함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0년 농촌중심지 활성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05억원을 확보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농촌지역 중심지를 발전거점으로 육성해 배후마을은 물론 인근 먼 지역까지 경제·교육·문화·복지 등 지역생활권 구현의 중심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사업이다.

군은 이번 공모사업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민간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 의견수렴, 사업과제 발굴, 전문가 자문 등 36차례의 관련 회의를 통해 사업예비계획을 수립했다.

나운수 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이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시로 찾아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피력했다.

군은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총 사업비 150억원(국비 포함)을 투입, 유동 인구가 집중되는 함평읍 시가지 일대에 어울림 커뮤니티센터, 어울림 광장 등 총 7개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함평=황윤학 기자 hwang@

영광군, 농업기계안전교육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영광군이 농촌진흥청이 주최한 2019년 농업기계 안전교육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강원도 양양군에서 농촌진흥기관농업기계담당 및 안전전문관과 강원도 농업인단체, 농업기계 산업담당자 등 400명이 참석한 이번 경진대회는 2019년 발농업기계화 촉진 및 무인기 현장 교육행사로 진행됐고 2019년 농업기계 안전교육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함께 개최됐다.

이번 경진대회에 전남도 대표 발표자로 선정된 영광군 농기계담당자 유정훈 주무관은 영광군농기계인대사업소 운영과 농업기계 교육훈련, 안전사고 예방 등의 폭넓은 활동 사례를 주제로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신안군, 급식비 등 지원 섬 명문학교 만들기 온힘

신안군은 민선 7기 역점시책사업인 도시에서 섬으로 유학 오는 명문학교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신안군에 따르면 군이 추진하는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은 중·고등학교 급식비를 비롯해 EBS 교재비, 모든 읍·면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 등 다양하다.

특히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해외 연수 제도 활성화(초·중)와 영어 능력향상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장학사업도 펴고 있다.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 대상 지역을 초등학생은 뉴질랜드, 중학생은 미국까지 1개국에서 2개국으로 확대한다.

대상 인원을 초·중학생 각각 10명에서 30명으로 늘렸다.

소요 비용은 100% 군비를 지원한다.

신안군정확재단은 올 한 해 동안 (주)신안천사김, 현석산업개발, 명성핀테크 외 41개의 기업·단체·개인으로부터 1억6천961만 원을 기탁받았다. 현재 조성된 장학금은 65억원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신안군, '1島 1뮤지엄 아트프로젝트' 본격 추진

5년간 1000억원 투입 인권평화미술관 등 건립

신안군이 하나의 섬에 하나의 뮤지엄을 건립하는 '1도(島) 1뮤지엄 아트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주민의 문화 향유와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작됐다. 앞으로 5년간 1000억원을 투입한다.

그동안 신안군은 천사대교 개통, 여객선 야간 운항 등 관광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관광객이 대폭 늘었지만, 문화·관광 인프라가 부족해 방문객 불만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관광객 불거리를 확충하고 주민들의 문화적 자긍심 고취와 문화 향유를 위해 1004섬 전역을 박물관·미술관으로 만드는 아트프로젝트를 민선 7기 박우량 군수의 브랜드 시책으로 추진한다.

그 시작으로 신의면에 150억원을 투입, 2022까지 인권과 평화를 주제로 한 '동아



시아 인권평화미술관'을 건립하기로 했다.

1월에 지역 출신 민중화가인 홍성담 작가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미술관 사전평가,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2020년 예산확보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천사대교가 개통돼 관광객이 밀려오고 있는 자은도에는 한국이 배출한 세계적인 조각가 박은선 작가와 건축의 거장 마리오 보타가 참여하는 조각을 주제로 한 미술관이 세워진다.

미술관은 150억원 규모로 야외 조각 전시장,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커뮤니티 공간으로 채워진다.

수하 김환기 선생의 고향인 안좌도에는 자연 그대로의 미술관이 130억원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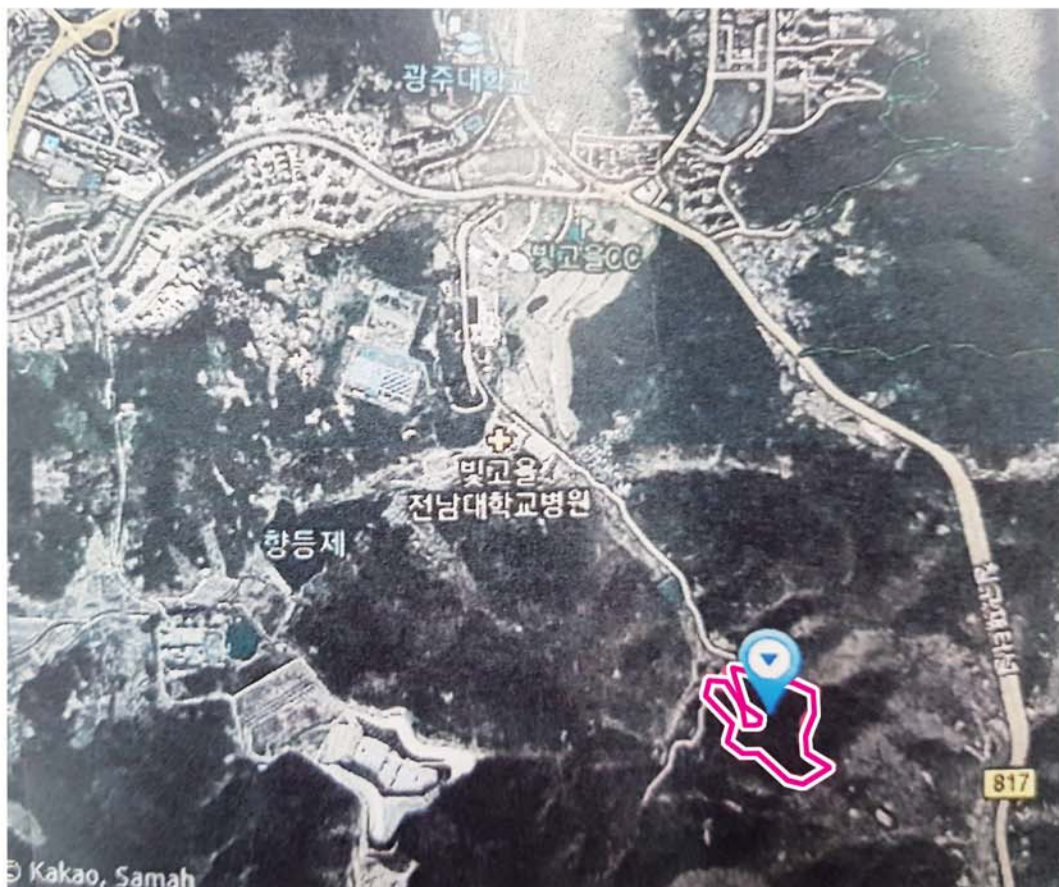
군은 민선 4기, 5기부터 압해도 저녁노을미술관, 압해도 에로소서각박물관(사진), 흑산도 철새박물관, 입자도 조희룡미술관 등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하의도에 천사상 미술관, 안좌도에 세계화석광물박물관을 잇따라 개관했다.

에로소서각박물관은 4월 4일 천사대교 개통 이후 지금까지 41만명이 다녀갔다.

신안군 관계자는 "그동안 선착장이나 방조제, 농로 포장 등 SOC 확충에 대부분의 예산을 쏟아부었다"며 "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졌으니 정부의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에 따라 문화시설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마지막, 300평 매매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

- 덕남동 입야, 992㎡, 지분 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덕남동 산64-21번지)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500만원(일시불 조정가)

문의. 010-6834-7400